



# 국내 만화 연 6천억 시장 형성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발행한 「2001 한국 출판연감」에 따르면 도서 발행 종수와 부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전체 출판물 중 만화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요즘에는 딱딱하고 골치 아픈 분야를 쉽고 친근감이 가도록 만화화해 출판하거나 학생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학습만화분야도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1 참조>

예전에는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공상의 나라를 펼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 중의 하나가 만화였다.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오락시설이나 공간이 부족했던 1970~80년대, 조그마한 만화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무아의 지경에 가까울 정도로 독서에 열을 올린 기억이 지금의 30~40대들에게는 있을 것이다.

지금은 각종 게임장비 및 컴퓨터게임, 그리

고 다양한 볼거리와 대단한 학습열기로 인해 한가롭게 만화가게에서 시간을 죽이는 일은 흔치 않다.

그 대신 비디오와 책 그리고 만화책을 대여해 주는 곳에서 만화책을 대여해 집이나 학교

<표1> 만화 도서 발행 종수 및 부수 추이

(단위 : 종, 부)

연도	발행 종수			발행 부수		
	총 종수	만화	비율(%)	총 부수	만화	비율(%)
1991	26,919	4,149	15.4	140,436,655	5,820,160	4.1
1992	29,477	4,694	15.9	142,165,393	5,413,195	3.8
1993	30,948	4,644	15.0	146,428,221	7,206,497	4.9
1994	34,494	4,930	14.2	163,153,613	10,827,510	6.6
1995	32,106	4,699	14.6	157,542,947	13,359,340	8.4
1996	32,256	5,592	17.3	176,158,448	18,021,725	10.2
1997	33,610	6,297	18.7	212,313,339	23,605,460	11.1
1998	36,960	8,122	22.0	190,535,987	33,025,623	17.3
1999	35,044	9,134	26.0	112,506,184	36,665,233	32.5
2000	34,961	9,329	26.6	112,945,032	44,537,041	39.4

<자료 : 대한출판문화협회>



에서 보는 습관들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렇게 쉽게 우리 주위에서 만화책을 빌려 주는 만화책 대여점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을 뿐더러 이러한 행위들이 만화 출판시장과 인쇄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를 것이다.

IMF 구제금융시절 아나바다 운동 등으로 아끼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것들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나머지 만화책도 빌려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만화계에서는 가장 골치 아픈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만화책 대여점의 존재는 출판계와 인쇄계에서는 동전의 양면처럼 취급된다. 대여점의 출현은 매년 약간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발행 중수에 비해 발행 부수가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데 있다. 대여점의 출현으로 판매 부수의 감소와 함께 인쇄 부수의 감소로 이어져 소량 다 품종의 경향을 뚜렷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히트작에서는 판매 부수에서 손해를 보지만, 비히트작에서는 대여점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위험부담을

안고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판업계와 인쇄업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할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 9월 26일 목동에 소재한 한국방송회관에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한 '출판만화산업 육성,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최근 만화시장에 대한 통계조사와 실태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 「출판만화산업의 동향과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만화소비시장은 대여시장 5,140억원, 판매시장 723억6천만원, 온라인 만화시장 169억4천만원 등 총 6,033억원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에서 보듯이 대여시장은 판매시장의 4배에 가까울 정도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온라인 만화시장도 170억원에 가까워 출판만화 판매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서 거론할 내용은 아니지만 만화계에서는 대여점의 존재, 낙후된 유통구조, 취약한 출판기획과 마케팅 능력, 열악한 제작환경 등을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여기에 일본만화의 번역 출간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만화시장 규모는 6,033억원이며 대여시장에서 일본만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65%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만화시장 중 한국만화 점유율은 37.5%(2,255억3천만원)에 불과했으며 일본만화는 대여시장에서 65%, 판매시장에서 35%의 점유율을 보였으며, 지난해 한국만화는 2,736종, 일본만화는 4,628종이 출간됐다. 인쇄업계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만화든 많이 출간만 하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국내의 우량 창작만화가 많이 나와 주고 판매가 된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윤재호 부장)